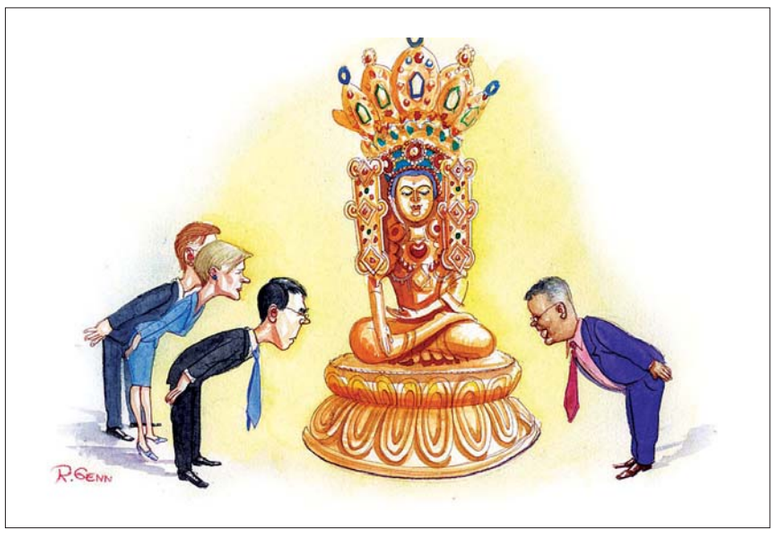
美 마음챙김 열풍… 벌써 $10억 규모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사원복지 수단으로 '각광'

내셔널리뷰 1월 1일 탐사보도 명상과 더불어 불교도 관심 늘어나 BUT 장사꾼 몰리고 타종교 견제…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미국 기업서 사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수단으로 마음 챙김 명상이 대세다. **사진출처=내셔널리뷰**

미국 기업서 사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수단으로 마음 챙김 명상이 대세다.

미국 시사지 '내셔널리뷰'는 "마음챙김(Mindfulness)이라는 특이한 것이 미국 회사들의 새로운 가스펠(gospel, 복음)로 자리잡았다"고 1월 1일 보도했다. 기업서 실행되는 마음챙김 명상만 10억 달러(한화 약 1조 705억 원)규모이며 '마음챙김 명상 지도사'라는 직업도 새로 생기는 추세로 최고의 명상지도자는 "실리콘 밸리 창업자 만큼 돈을 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내셔널리뷰'는 "명상 그 자체는 불교나 부처님을 몰라도 할 수 있다. 때문에 미국서도 명상 바람이 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불교를 내새우지 않아서 각광받기 시작한 명상은 되려 미국 사람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고 있다. 명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자 미국 내 불교에 관심이 높아지고, 불교에 관한 서적들이 여럿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태고종의 수행자이기도 한 로날드 퍼서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교수는 "기업에서 명상 관련한 회의를 자주 연다.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기업의 공공연한 회의의 주제가 됐다. 불교의 교리를 공부하는 기업가도 늘어나고 있다"고 미국 기업 내 명상이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명상과 불교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불교를 공부하는 입장서 봤을 때 비불교적인 측면도 있다.

또한 불교를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불교를 단지 동양의 이국적 정서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명상은 기업과 정부가 나서 개인에게 제대로 교육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셔널리뷰'는 이런 명상의 열기가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드러냈다. 명상붐 이전에 단발적으로 유행하던 다른 '힐링' 열풍과 지금 유행하는 명상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명상 시장이 커지자, 이와 관련 없는 장사꾼들이 명상사업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부처님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사람들이 명상을 장사로 사용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실태"라고 설명하며 "명상을 장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명상 시장이 잡아먹히는 순간 이 시장은 변질되고 이전에 다른 트렌드들과 다르지 않게 무너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셔널리뷰'는 종교적 이유도 덧붙였다. 다종교가 함께 모여있지만 미국의 대다수는 개신교와 가톨릭교 신자다. 불교와 함께 커지는 명상을 달갑게 보지 않는 세력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불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시작된다. '내셔널리뷰'는 "단지 머리를 밀면 누구라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 예전부터 다양성을 인정해온 불교는 기득권에게는 상하관계를 위협하는 요소가 다분해 위험요소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뉴델리 한 복판 불교전시 '대성공'



보리수나무서 고행하는 붓다를 그린 아비색 징스(Abhishek Singh)작. 펜과 잉크.



붓다와 중생의 머리 조각. 대화하는 모습을 표상했다. 부란 키누(Burhaan Kinu) 사진.

그림, 조각 등 볼거리 '풍성' 불교 전시로 유례없는 흥행

뉴델리 오자스 미술관서 '자애의 눈빛: 미술에 각인된 불교(Benevolent Gaze: Buddhist Imprints In Art)' 전시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인도 언론 '힌두스탄타임스'는 1월 6일 뉴델리서 열린 불교전시에 관광객 및 현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됐다고 보도했다.

불교에 깊이 귀의한 수행자들의 작품을 전시한 이 전시회는 불교미술의 장르를 확장했다는 평을 받는 50여 점의 미술품이 모여 있다.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번 전시는 인도서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참여해 더욱 관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조각가 KS 라다크리슈난(KS Radhakrishnan), 조각·미술가 사티쉬 구프타(Satish Gupta), 화가 아비색 징(Abhishek Singh), 사진가 아디타 아리야(Aditya Arya) 등이다.

전시는 뉴델리에 위치한 오자스 미술관서 1월 14일까지 진행됐다. '힌두스탄타임스'는 그림, 조각 뿐 아니라 예술적 사진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방문했고, 힌두교가 국교인 인도서 유례없는 불교전시의 흥행이었다고 평가했다.

박진형 기자

"한 해 목표 세워 선하게 살아라"

달라이라마, 세계인에 신년 메시지 부처님의 초전법륜지 사르나트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새해를 맞아 인도의 사르나트에서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사진출처= 더 티베트 포스트**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는 개인에게서 시작됩니다. 즉 내면에서 외부로 향합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신년메시지다. 달라이라마가 새해를 맞아 지난 1월 1일 인도의 사르나트에서 신년 메세지를 전했다고 '더 티베트 포스트'가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5일간 부처님이 초전법륜지인 사르나트를 방문했다. 구랍 30일, 31일 양일에 걸쳐 '마음에 대한 과학과 철학'이라는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한 달라이라마는 방문의 마지막 날인 1월 1일 세계인들을 향해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달라이라마는 "우리 모두는 시간 여행자다. 한 달, 한 주, 하루, 한 시간 등 우리는 시간을 여행하고 있다. 오늘은 이제 2018년"이라며 "여러분이 2019년의 오늘에 2018년을 되돌아 볼 때 어떻게 만족스럽게 '난 한 해를 잘 살았어, 한 해의 목표를 잘 이뤘어'라고 하고 싶은가? 아니면, 결국 스스로가 일으킨 모든 문제들을 후회하며 되돌아보고 싶은가?"라고 대중에 물었다.

달라이라마는 이어 "새해가 시작되고, 앞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을 계획하고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한 해를 의미 있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한해를 되돌아보았을 때 행복과 즐거움 속에 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달라이라마는 "실제로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선하게 살겠다는 목표와 의식을 가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등으로 퍼진다. 이것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다주는 방법이다. 우리는 사회의 변화를 말하지만 그 변화는 개인에게서 시작된다. 즉 내면에서 외부로 향한다.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변화를 외부나, 위에서 기대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며 자신이 노벨평화상을 받았을 때 티베트인들에게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고 한 해를 선하게 살 것을 강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여보세요? 스님, 상담 좀 해 주세요"

종파 넘어 '불교 전화상담' 화제 6개 종단, 150여 스님 자원봉사 필요시 대면·서면상담도 가능해

일본서 종파를 넘나드는 다양한 스님들이 전화로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을 상담 해주는 '불교 텔레폰 상담'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며 일본 인터넷 언론 '이로이로'가 1월 6일 보도했다.

이 상담을 전담하는 일본 (사)불교정보센터는 약 35년전인 1983년 설립됐다. 당시 설립자들은 일반인들에겐 사찰의 문턱이 높다는 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화상담이라면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도쿄권내 9개 교단에서 뜻을 가진 스님들이 모여 전화상담사무소를 개설한 것으로 시작했다.

센터는 "일본서 불교는 죽은 이들을 위한 종교라는 생각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적 의지처로서 현대사회와 함께 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종파와 교단을 넘어 단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기존 일본불교계에선 이미 각 종파가 연합하여 활동을 하고 있었고 설립멤버들은 특히 일본의 전국청소년 교화를 위한 단체에 속했던 스님들이었다. 당연히 한데 모이는 게 자연스러웠고, 다양한 종파와의 만남이 교단이 아닌 개인과 개인으로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는 일이었다.



일본서 종파를 넘나드는 다양한 스님들이 전화로 현대인의 고민과 불안을 상담 해주는 '불교 텔레폰 상담'이 주목을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불교정보센터 홈페이지**

2008년에는 전화상담건수가 14만 건을 돌파했다. 3대의 전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연 간 4200~4300건의 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설립당시엔 묘지 이장이나 천도재, 신앙상담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인생관, 마음의 상처에 대한 상담이 반수를 넘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상담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 있어선 "일반적인 카운슬링·전화상담의 방침은 경청하는 것이 주가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해 보이지 않는 상대에 대한 대기설법, 애어섭(愛語攝)의 수행을 실천, 일기일회(一期一會)의 보살행을 중점으로 둔다. 상담에 있어서 설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각 종파의 종조들, 경전에서 설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에 대답한다"는 것이 센터의 입장이다.

'사람과 사회에 다가가는 불교'가 방침이라는 불교 텔레폰 상담은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거리 상담, 강사파견, 강사초청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생명을 바라보는 모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소수화·고독화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박영빈 객원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를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 (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6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